

인조대리석 공급 포화상태로 불안!

4사 생산능력 200만매 이미 상회 ... 소형 아파트 위주로 확산추세

인조대리석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조대리석은 LG화학이 Line Speed와 신설 1개 라인의 증설로 생산능력을 3680mm 기준 65만매로, 한화중합화학은 40만-45만매로, 제일모직은 소규모 증설을 꾸준히 추진해 40만매에 달하고, DuPont은 35만매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2년에는 인조대리석 수요급증에 따른 공급 타이트로 국내 인조대리석 매출이 전년대비 5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해 이미 공급과잉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03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조대리석은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했으나 최근에는 소형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으며 ATH 60%, MMA 35%, 기타 첨가물 5%로 제조되고 부역의 대형화에 따라 3000mm에서 3680mm로 바뀌는 추세이다.

2002년에는 인조대리석 국내시장에 제일모직과 한화중합화학이 가격을 약 15%씩 인하하면서 시장쟁탈전이 일어났었고 2003년 들어 제일모직이 가격을 더 내릴 것으로 알려져 출혈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06>